

**강릉아산병원** 시 기반 스마트 케어 병동 확대



강릉아산병원 스마트 케어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AI 환자감시 시스템과 연동되는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6월 1일 입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AI 환자감시 시스템 '씽

크(thynC)'의 운영 병동을 확대해 총 4개 병동 164병상 규모의 '스마트 케어 병동'을 구축했다.

AI 환자감시 시스템은 환자가 착용한 소형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전도와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주요 활력징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는 방식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병동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단순 수치 변화뿐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의 추세까지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한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기준값을 벗어나거나 낙상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알람이 전송돼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 케어 병동 운영 확대를 통해 야간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보다 촘촘한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아산병원**

**전북권 구급대원 세미나 기본과정 개최**



전북권 구급대원 세미나 기본과정에 참여한 강사와 구급대원들.

정읍아산병원은 5월 19일 전북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북권 구급대원 세미나 기본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해 전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구급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높이고 병원 전 단계에서 최종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소생술과 심전도,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실무 중심의 전문 강의로 진행됐다.

**보성아산병원**

**고혈압·당뇨 환자 위한 정밀검진 지원**



보성아산병원은 보성군과 협약을 맺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병증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이번 검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신장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미세 단백뇨 ▲경동맥초음파 등 주요 검사를 실시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심전도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